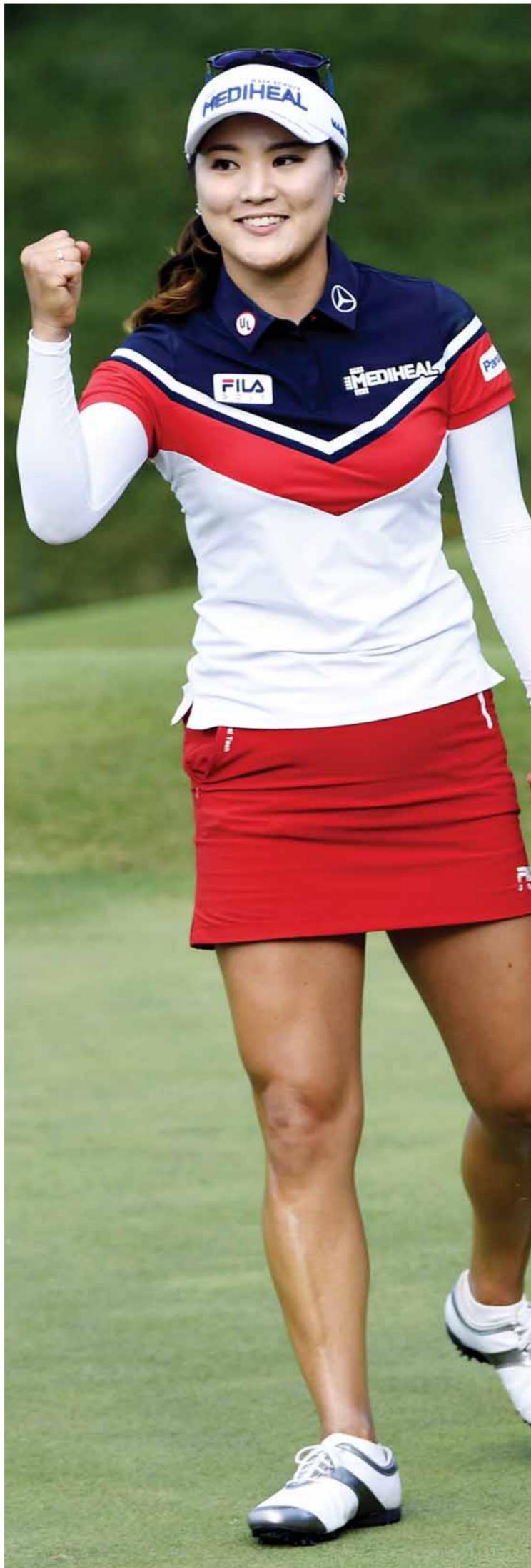


유소연 세계 1위 등극... 신지애·박인비 뒤 있다



유소연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유소연은 이날 우승으로 생애 처음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사진은 유소연이 우승이 확정되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LPGA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2타차 우승

시즌 2승·상금 선두...태극낭자 16개 중 8개 석권

유소연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랭킹 3위 유소연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633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195타를 기록한 유소연은 16언더파 197타인 공동 2위 양희영, 모리아 쥘타누간(태국)을 2타 차로 따돌렸다.

4월 초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린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한 유소연은 올해 LPGA 투어에서 가장 먼저 2승 고지에 올랐다.

2011년 US 여자오픈을 시작으로 2012년 제이미 파 톨리도 클래식, 2014년 캐나다오픈에서 정상에 올랐고 올해 2승을 추가한 유소연은 투어 통산 5승을 기록하게 됐다.

또 유소연은 이날 우승으로 생애 처음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지난주 3위였던 유소연은 1위였던 에리아 쥘타누간(태국), 2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를 추월해 1위가 됐다. 한국 선수가 여자골프 세계 1위가 된 것은 신지애, 박인비에 이어 유소연이 세 번째다.

우승 상금 30만 달러(약 3억4000만원)를 받은 유소연은 또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가장 먼저 돌파(121만 2820 달러)하며 상금 선두도 탈환했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열린 16개 대회의 절반인 8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번 시즌 LPGA 투어는 앞서 열린 15개 대회에서 모두 다른 우승자가 배출되면서 2승 선수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 대회에서 유소연이 시즌 첫 2승 선수가 됐다.

2라운드까지 2위에 5타나 앞선 단독 1위로 마지막 날 경기를 시작한 유소연은 중반까지 양희영에게 2타 차로 쫓겼다. 이번 대회 54개 홀을 치르는 동안 유일한 보기가 11번 홀(파3)에서 나왔고, 이때 양희영은 11, 12번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2타 차로 따라붙은 것이다.

그러나 유소연은 곧바로 12번 홀(파4)에서 버디를 낚은 반면 양희영은 13, 14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쏟아내며 다시 5타 차로 벌어졌다.

양희영은 이후 15, 16, 18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유소연과 격차를 좁혔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소연은 17번 홀(파3), 18번 홀(파5)에서 연달아 2~3m 거리의 버디 퍼트를 놓쳤으나 경기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순위	선수	랭킹 포인트
1	유소연	8,8314
2	에리아 쥘타누간	8,5820
3	리디아 고	7,9288
4	렉시 톰프슨	7,7421
5	전인지	7,1541
6	평산산	6,5377
7	박인비	5,7769
8	박성현	5,4976
9	양희영	5,4361
10	안나 노르드크비스트	5,2804

자료/www.wgwr.net /연합뉴스

박인비가 12언더파 201타로 공동 6위에 올랐다. 한편 유소연은 “나를 지지해주고, 1위로 만들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이제 굉장한 압박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안다”며 세계랭킹 1위의 무게를 잘 견디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스윙패 악몽 털고 단독 1위 탈환하라

T 타이거즈 전망대

‘7’을 지우고 ‘1’을 지켜야 하는 ‘호랑이 군단’이다.

KIA 타이거즈가 주말 마산 원정에서 3연패를 안고 돌아오면서 지난 4월 14일 이후 이어진 1위 독주는 중단됐다.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던 NC 다이노스와 나란히 공동 1위 자리에 오른 KIA는 이번 주 ‘7의 악몽’을 낚긴 두 팀과 대결을 한다.

주중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하는 KIA는 주말에는 잠실로 가 LG 트윈스와 대결을 갖는다. 올 시즌 KIA에 충격적인 순간을 안겨준 두 팀이다.

KIA는 지난 4월 1일 삼성과 시즌 첫 연장을 치러 승리를 거뒀다. 승리는 했지만 연장으로 가는 과정이 좋지 못했다.

‘신입 외국인 선수’ 팻딘이 한국 데뷔전에 나섰던 이날, KIA는 7-0의 리드 상황에서 9회 마지막 수비에 나섰지만 불펜의 난조로 7-7 동점을 허용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했다.

그나마 삼성전은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LG전 ‘7점 악몽’은 쓴 패배로 남았다.

지난 18일 안방에서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NC전 3연패 하며 독주 멈춰

헥터-양현종 순서 바뀌 등판

삼성-LG전서 분위기 반전 노려

노렸던 KIA의 출발은 좋았다.

KIA는 1회부터 서동욱의 만루포에 이어 김민식의 백투백 홈런이 나오면서 7점을 뽑아냈다. 상대 선발 임찬규가 헤드샷으로 퇴장까지 당하면서 KIA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됐지만, 수비에서 뼈격거리면서 8~16 역전패를 당했다.

‘7’에 담긴 나쁜 기억을 털어내고 ‘1위’라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한 주다.

양현종이 1위 수성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는다. 선발 로테이션상으로는 헥터의 등판이지만 순서를 바꿔 양현종이 먼저 마운드에 선다.

반전에 성공한 양현종이 팀 분위기를 반전까지 이끌어야 한다. 개막 후 7연승을 달렸던 양현종은 5월 20일 두산전을 시작으로 부진에 빠졌다. 이날 5회도 버티지 못하고 4.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던 양현종은 이후 3연패에 빠졌다. 지난 1일 NC전에서는 2이닝 6실점(3자책점)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6월 9일 넥센전에서 초반 위기를 넘고 6이닝 4실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72	45	0	27	0.625	0.0
1	NC	73	45	1	27	0.625	0.0
3	SK	73	40	1	32	0.556	5.0
4	두산	70	36	1	33	0.522	7.5
5	LG	71	37	0	34	0.521	7.5
6	넥센	73	37	1	35	0.514	8.0
7	롯데	72	33	0	39	0.458	12.0
8	한화	72	30	1	41	0.423	14.5
9	삼성	73	28	3	42	0.400	16.0
10	kt	73	26	0	47	0.356	19.5

점으로 연패에서 탈출한 양현종은 이후 롯데와 두산의 타자들을 잠재우며 2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낮선 상대가 KIA 타자들을 기다린다. 삼성의 새 외국인 선수 레나도가 올 시즌 처음 KIA를 상대하게 된다. 레나도는 올 시즌 6경기에서 나와 4.88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을 거두는 데 그치고 있다. 패는 없지만 6경기에서 소화한 이닝이 26.2에 불과할 정도로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상승세의 양현종을 앞세운 KIA가 ‘KBO 루키’ 레나도를 상대로 ‘화염타이거즈(9승1패)’의 면모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광주 동성고 ‘안방마님’ 한준수 1차 지명

KIA 타이거즈가 2018년 신인 1차 지명 선수로 광주 동성고의 ‘안방마님’ 한준수를 선택했다.

185cm, 90kg의 동성고 ‘캡틴’인 한준수(18세·우투양타)는 공수 양면에서 수준급 기량을 갖춘 포수로 꼽힌다. 건장한 체격의 한준수는 유연성까지 겸비해 체계적인 지도를 받는다면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준수는 “미트에 공 들어가는 소리가 좋아서 포수가 됐다”고 말하는 ‘타고난 포수’다.

서석초 1학년 때 야구를 시작한 한준수는 동성중-동성고를 거치며 줄곧 포수로만 뛰어들었다. 올 시즌에는 주장까지 맡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동성고 김재덕 감독은 “1학년 때부터 경기를 뛰어서 경험이 많고, 큰 경기에 강하다. 유연성이 좋아 발전 가능성이 높다. 아마에서는 포수 지도에 한계가 있는데 프로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면 강민호(롯데)와 같은 유형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며 “눈치도 빠르고 순발력도 좋다. 대형 포수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다”고 평가했다.

한준수는 “KIA 유니폼을 입은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좋아하는 팀에서 야구를 하게 된 게 꿈 같다. 아버지께서 광주일고에서 야구를 하셨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야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적극 지지해주셨다. 유니폼을 보여드리니까 정말 좋아하셨다”며 “(신)범수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 프로에서의 훈련이 정말 힘든 것 같지만 참고 이기면서 많이



배우고 좋은 포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롤모델은 롯데의 강민호, 팀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선배는 김민식이다.

한준수는 “강민호 선배님이 롤모델이다. 공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수비를 이끌고 싶다”며 “김민식 선배님에게는 도루 저지에 대해 묻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저지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웃었다.

이번 지명을 통해 한준수는 타이거즈에서 1차 지명을 받은 6번째 포수가 됐다.

“6번째 포수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한준수는 “다음 주에 청룡기가 개막한다.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는데 꼭 우승하고 싶다. 내 성적보다는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니가 주장 역할 잘해서 좋은 결과 얻고 졸업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김민혁 ‘K리그 올스타’ 선정

광주 FC의 김민혁이 ‘K리그 올스타’로 베트남행 비행기에 오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오는 7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017 K리그 올스타전 선발팀 명단을 확정, 발표하였다.

광주 ‘중원의 사령관’ 김민혁은 K리그 ‘최고의 워터’ 염기훈(수원)과 황일수(제주), 손준호(포항), 한상운(울산), 김도혁(인천) 등과 미드필더진에 이름을 올렸다.

공격진은 15라운드 현재 클래식 득점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양동현(포항)을 비롯해 국가대표급 공격수 김신욱(전북), 이근호(강원)가 선발됐다.

수비진은 김진수(전북), 곽태휘(서울), 홍철(상주), 오반석(제주), 구자룡(수원), 오범석(강원), 최효진(전남)으로 구성됐다. 김용대(울산)와 조현우(대구)는 수문장으로 함께 한다.

벤치의 진용도 화려하다. ‘디펜딩 챔피언’ F C서울의 황선홍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며, 울산 김도훈 감독과 수원 서정원 감독이 코치로 동행한다.

한편 이번 2017에 선정된 올스타팀은 7월 29일 하노이 미딩경기장에서 팔라뽀푸르 동남아시아 게임에 출전할 베트남 국가대표팀과의 경기를 갖는다. 전·후반 45분씩 총 90분 경기를 진행되며, 베트남의 인기 스타인 쯔영(강원)은 베트남 대표팀의 일원으로 뛰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